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3 권 4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p><b>▶제 1 독서</b></p> <p style="text-align: center;">하바 1,2-3; 2,2-4</p> <p><b>화답송</b></p> <p>◎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p> <p>○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p> <p>○어서 와 옆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p> <p>○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 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p>		<p><b>▶제 2 독서</b></p> <p style="text-align: center;">2 티모 1,6-8.13-14</p> <p><b>복음환호송</b></p> <p>◎알렐루야.</p> <p>○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p> <p><b>▶복음</b></p> <p style="text-align: right;">루카 17,5-10</p> <p><b>영성체송</b></p> <p>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p>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월 6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0월 13일	전 니콜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10월 20일	유 요한	이 바오로	성인복사
10월 27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9월 29일	\$ 292.00	-	\$ 150.00

\*2차 봉헌은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에 있습니다.

10월 로사리오 성월: 묵주 기도 시작시간 (주일미사 30분 전)

10월 로사리오 성월기간 동안, 매주 주일미사전 묵주기도 5단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묵주기도 시작시간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고백성사: 주일미사 30분 전 또는 예약

호세 노보아 신부님께서 주일 미사시작 30분 전 (주일 오전 7:30분)에 고백성사를 해 주십니다. 한인공동체 신자들은 평소와 같이 한국어로 고백성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이삭

일용할 양식, 미사

차동엽 노르베르도 신부 | 인천대학교

침묵, 고요, 집중을 몸에 익힌다.

미사의 은총을 제대로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침묵, 고요, 집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현존 안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는 침묵하고 고요함 안에서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미사를 재미없어하고 따분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데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변화에 더 익숙한 이들, 잠깐의 짬도 인터넷이나 핸드폰 대화로 메우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미사 시간이 여간 고역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침묵, 고요, 집중을 몸에 익히게 되면 그들이 이제까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정숙하면서 생각과 분심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사가 시작되기 전 조금 일찍 와서, 쓸데없이 여기 저기를 둘러보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공연히 책을 뒤적거릴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고요함에 이르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요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침묵입니다. 고요함이란 단순 히 외적으로 침묵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고요함은 생각, 감정, 마음까지도 평안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미사를 거행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관상할 수 있습니다.

집중은 세상의 다양한 사물과 사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주의력을 되찾아 혼란해진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 전례나 성체 조배를 할 때에는 언제나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전례는 단순한 구경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사에 참례할 때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는 온전히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hit et nunc)'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사와 성체조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소식

한인공동체 평협 임원회의: 10/8 (화) 저녁 8시

10월 한인공동체 평신도협의회 임원회의는 10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10월 성체조배: 10/10 (목) 저녁 6시 30분

10월 성체조배는 둘째 목요일인 10월 10일, '저녁 6시 미사'후에 있습니다.

베이커스필드 한인의 날 축제: 10월 13일 (주일) 오후 1시

장소: 실버크릭 공원(Silver Creek Park)

7011 Harris Road, Bakersfield, CA 93313

'한인성당' 단위로, 참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공지될 예정입니다.

소공동체 구역모임: 10/20(주일) '오전 8시 주일 미사' 후

10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셋째 주일인 10월 20일 주일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가을 하마йка 축제: 11/3(주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을 하마йка 축제가 11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준비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 요아킴 신부님 안식년: 8월 1일 - 12월 6일

전 요아킴 주임신부님께서 약 4개월간 안식년을 가지십니다. 안식년기간 동안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 가운데 내적 고요함과 집중을 이뤄, 매번 미사 또는 성체조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과르디니, [미사, 제대로 드리기] 참조).

초대하는 마음으로 '성호경'긋는다.

미사를 시작하면서 '성호경'을 그을 때 그 의미를 확실히 알아두면 그 자체로 큰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성호경을 그을 때에 우리는 손을 먼저 합장하여 가슴에 붙이고 오른 손가락을 모두 한데 모아,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편 어깨에서 "성", 오른편 어깨에서 "령의"하며 십자를 긋습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오른손과 왼손을 다시 가슴에 합장하여 모으면서 성호경의 남은 부분 "이름으로. 아멘"을 외웁니다. 이렇게 하는데에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성호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의 지식(이마)과 감성(가슴)과 의지(양 어깨)에로 초대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새기면서 성호경을 그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로 정성껏 초대하면 좋을 것입니다.

- '성부와'하는 사제의 기도가 내 귀에 들어오면, "나를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오소서!"하고 초대하십시오.

- '성자와'하는 말씀이 사제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에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님 제게 오소서!"하고 청하십시오.

- '성령의'하는 소리가 들어올 때는 "내게 힘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파라클리토 성령님 제게 오소서!"하고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지성, 감성, 의지)에 강림하시어 머물러 주십니다.

[다음 주에 계속]